

12/31/23

설교 제목: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시편 126 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 126:1)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절관주** 시 85:1, 행 12:9

(시 126:2) 그 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찻았도다 그 때에 못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절관주** 욘 8:21

(시 126:3)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시 126:4)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절관주** 사 43:19

(시 126:5)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절관주** 암 5:12

(시 126:6)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2023 년 마지막 날입니다.

새해를 맞은 것이 그리 오래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한 해의 끝자락에 섰습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다더니 유수보다 더 빨리 흐르는 것 같습니다.

세월이 10 대에는 시속 10km, 20 대는 20km, 30 대는 30km, 40 대는 40km, 50 대는 50km, 60 대는 60km, 70 대는 70km.... 로 흐른다던데 이제 제 나이도 제법 되는가 봅니다.

매년 마지막 날에 접어들면 우리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연말 결산이지요.

그것을 토대로 한 해 동안 얻은 것과 잃은 것, 성공한 것과 실패한 것, 이득을 본 것과 손해를 본 것 등을 꼼꼼하게 따져 그 원인들을 분석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합니다.

여러분도 이미 결산을 마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2023 년도 여러분의 결산은 어떠셨는지요?

풍성한 수확을 거두셨는지요?

인간은 모두 풍성한 수확을 꿈꾸지만 누구나 다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풍성한 수확을 위해 알아야 할 만고불변의 자연 법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뿌린대로 거둔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랜 역사를 통해 증명된 진리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매일의 삶을 살면서 그것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는 것은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그 결실을 거둬들이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이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시 126:5)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시 126:6)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호 10:12)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갈 6:7)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 6:8)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갈 6:9)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뿌린대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대로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본 시의 기자는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라에 더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고 '눈물'을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기자가 이 시를 쓰고 있는 시대의 역사적인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본시의 저자는 미상입니다.

본시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시편에는 10 여편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소제목이 붙은 시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들입니다.

특히 이 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 갔다가 70 여년만에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며 부른 노래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을 올라가면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노래한 것입니다.

(시 126:1)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시 126:2) 그 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찻었도다 그 때에 못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시 126:3)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리라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그들의 기쁨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기자는 그 기쁨을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다고 표현합니다.

열방들도 이 일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와 권능을 인정하고 증거하였습니다.

남 유다 왕국은 BC 586 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세 차례에 걸친 예루살렘 침략으로 인해 완전히 멸망했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백성들 대부분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나라 잃은 설움을 겪으며 절망 가운데 소망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당해낼 자가 없을 만큼 강했던 대제국 바벨론이 BC 539 년 메대 바사에게 무너진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멸망시킨 새로운 강대국 바사 고레스 왕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왔던 유다 백성들을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것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빼앗아 온 성전의 금 은 그릇 등 모든 보물들과 함께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고레스 왕은 유다 백성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고, 사람들에게 유다 백성이 성전을 재건하는데 필요한 모든 도움을 주라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심지어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라는 고백을 하기까지 합니다.

- (스 1:1)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 (스 1:2)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 (스 1:3)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라
- (스 1:4) 그 남아 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 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 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어떻게 이방 민족 바사의 왕인 고레스가 이런 놀라운 행동과 고백을 하는 것인지 놀라울 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일이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미 이렇게 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입니다.

- (렘 30:10)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네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사야 선지자의 고레스와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활동했던 선지자로 이 예언은 고레스가 바사 왕으로 세워지기 약 150 년전에 한 것입니다.

- (사 44:28)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네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런 예언들로 미루어 보건데 고레스 왕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선하신 도구로 세우신, 하나님의 그 깊이를 알수 없는 경륜을 따라 훈련되고 준비되었던 종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 빠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쓰임받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여 고국으로 돌려보내고, 그들로 하여금 꿈에도 그리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올라가면서 기쁨의 찬송을 다시 부를 수 있도록 하는데 쓰임을 받은 종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깊고도 풍성하신 지혜와 경륜을 노래합니다.

(롬 11:33)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또는 부요와 지혜와 지식이며

(롬 11:34)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지 70 년만에 조국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입니다.

아 얼마나 그리던 일입니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어릴 때 부모의 손을 잡고 함께 갔다가 그때까지 생존해 있던 백발의 노인들도 있었고, 바벨론에서 태어난 2 세 혹은 3 세들도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던 70 여년의 기간 동안 유다 백성은 바벨론 사람들에게 갖은 핍박과 조롱을 받고 수모를 당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유다 백성들을 향해 자신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를 불러 보라고 하며 놀리고 조롱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직접 겪은 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눈물로 토로하고 있습니다.

(시 137:1)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시 137:2) 그 중의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시 137:3)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시 137:4)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제 이들은 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이 회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여전히 많은 문제가 산재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다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데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상당수의 형제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기자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라고 간절히 구합니다.

(시 126:4)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남방 시내들 같이’에서 남방은 네게브 사막을 가리킵니다.

네게브 사막은 평소에는 바짝 마른 상태로 있다가 가을이나 겨울이 되면 한꺼번에 많은 양의 비가 내려 일순간에 흙탕물이 가득한 곳으로 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자는 이것을 빗대서 하나님께서 남은 포로들을 일순간에 귀환시켜 주실 것을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이라 합니다.

고통과 근심의 때일지라도 씨를 뿌리는 자는 추수 때에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시 126:5)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시 126:6)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수고 고통 압제 낙심 기다림의 때를 믿음으로 극복하는 자는 결코 상급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많은 시련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씨를 뿌리면 반드시 영광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눈물은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눈물을 흘리며 뿌려야 할 씨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과 이웃의 죄를 위한 회개입니다.

둘째는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드리는 찬양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뿌린 씨는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로 죄사함을 얻고 영원한 평강을 누리는 기쁨의 단을 추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수확이 기대한 것만큼 없으십니까?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마시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십시오!

믿음 안에서 주신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눈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풍성한 기쁨의 단을 거둘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현재 당하는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인내하고 견디면 하나님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반드시 꿈꾸는 것과 같은 기쁨의 열매를 추수하게 하실 것입니다.

현재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 절망하거나 낙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 풍성한 기쁨의 단을 거두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